

2017-경찰간부후보시험-한국사 문제[해설+정답]-정시용 교수 제공-

1. 선사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알려주는 유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오수전 ② 세형동검
- ③ 반달돌칼 ④ 미송리식 토기

[정답] ①

[해설] 이 문제는 정밀하게 출제되지 못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다음 유물 중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알려주는 유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묻는다면 이론의 여지 없이 ①오수전이겠으나, 자칫 선택지에 제시된 유물이 모두 선사시대의 유물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지에서 제시된 유물이 출토된 유적지는 청동기 시기 이후의 유적지로, 발문은 ‘선사시대의 유적’이라고 시기가 주어졌으나 선택지의 유물은 모두 선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역사시대’의 유물이다. 통상 ‘선사시대’라는 용어는 도구를 기준으로 시기구분을 한 고고학에서 차용하여 써오던 것으로, 구석기와 신석기 시기를 칭하는 범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의 사용 여부, 계급의 발생, 국가의 성립 등으로 보아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이후부터 ‘역사시대’라고 규정해왔다. 곧 구석기문화 시기나 신석기문화 시기는 원시사회로서 사회적 특질은 원시적 평등을 기초로 한 원시공동체사회이고 계급의 발생과 분화, 국가의 성립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시기인 청동기시기부터는 역사시대로 규정하여 왔다. 고고학도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그 연구성과를 반영하되 종합적으로 역사학에서 인간의 삶의 특질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시대구분’이란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계사의 보편적 특질과 한국사의 특질이 겹치는 특정한 시기의 결절점을 ‘시대’라고 해야 한다. 즉, 원시사회,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크게 시대구분을 한 후 그 안에서 계기적 발전과정에 따른 세부 시기구분이 있는 것이다.

①오수전-초기 철기시대 및 백제 유적에서 출토한 중국 한무제 원수 4년 [서기전 119]에 처음으로 주조한 화폐로, 중국 화폐 역사상 통용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서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수대(隋代)에 이르기까지 약 900여 년에 걸쳐 단속적으로 발행·사용되었다. 출토지역도 대부분 중국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북부지방에 집중한다. 평양 주변, 은율군 운성리, 황주군 선봉리 1호분, 흑교리 등의 움무덤에서도 약간 보인다. 특히 흑교리에서는 서한 후기로 비정되는 천상형문 오수전이 출토한 바 있다.

그러나 남해안지방의 도서 및 해안지역, 호남 및 영남 내륙지역과 한강유역, 동해안지역의 강원도에서도 오수전의 출토 예가 있다. 남한지방에서는 오수전이 10개 지역에서 1,009점 출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풍납토성 에서 오수전 1점, 강릉 초당동에서 오수전 2점, 여수 거문도에서 오수전 980점,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오수점 3점, 창원 성산에서 오수전 1점, 사천 늑도유적에서 오수전 1점, 경산시 임당동에서 오수전 3점, 영천시 용전리 돌널무덤에서 오수점 3점, 제주시 산지항에서 오수전 4점, 이 밖에도 제주도 출토품으로 전하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의 오수전 11점, 신안 해저침몰선에서 오수전 2점이 발견되었다.

유입방법은 육상과 해상루트를 통해 유입되었는데, 내륙지역에서 발견된 화폐는 육상루트를 통해서 유입되었고,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견된 화폐는 교역로상의 해상루트를 통해 유입되었다. 이러한 금속화폐는 상품거래수단의 교역 매개물, 위세품, 분묘 부장품, 의례용 등 여러 가지 기능과 용도로 사용되었다.

②세형동검-초기철기 시기 독자적 청동기 문화의 근거. ③반달돌칼-청동기 시기 농경도구로, 벼이삭을 따는 도구이다. ④미송리식 토기-평북 의주 미송리에서 출토된 고조선의 표지유물이다.

2.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 빙하가 물러가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직후 옛사람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봉산 지탑리 등 여러 유적에서 탄화된 곡물과 돌보습, 뿔쟁이 등의 농기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초보적 수준의 농경이 시작되었다.
- ② 정착 생활을 하며 개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 ③ 집의 형태는 막집에서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어 갔으며, 그들이 남긴 직사각형 모양의 집터가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
- ④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고, 조가비나 뻥, 뿔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었다.

[정답] ③

[해설]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의 시기는 서기 전 8천년 전이므로 신석기 시기[서기전 8천년 전~서기전 2천년(혹은 1천5백년) 전]를 의미한다. ①②④-신석기 시기의 생활상이다. ③-여러 시기를 섞어서 틀린 문장으로 만들었다. 집의 형태는 막집→구석기,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어 갔으며→청동기, 그들이 남긴 직사각형 모양의 집터→청동기,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신석기 시기의 특징이다.

3. 고조선의 성립 사실을 역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풍백, 우사, 운사 등을 두어 바람, 비, 구름 등 농경과 관계 되는 것을 주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②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 연대가 ‘여고동시(與高同時)’로 기록되어 있다.
- ④ 단군신화가 기록된 책으로는 『동국이상국집』,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등이 있다.

[정답] ④

[해설] 단군 신화[사화(史話)]가 기록된 책으로는 『삼국유사』(13C) · 『제왕운기』(13C) · 『응제시주』(15C) · <동국세년가>(15C) · 『세종실록지리지』(15C) · 『동국통감』(15C) · 『동국여지승람』(15C) · 『신증동국여지승람』(16C) · 『규원사화』(17C) · 『환단고기』(20C)[<삼성기三聖紀>·<단군세기檀君世紀>·<북부여기北夫餘紀>·<태백일사太白逸史> 포함] · 『단기고사』(8C?→20C) 등이 있다.

④- 『동국이상국집』은 고려 무신집권기 문신인 이규보[1168~1241]의 시문집으로, 아들 함(涵)이 1241년(고종 28) 8월에 전집(前集) 41권을, 그 해 12월에 후집(後集) 12권을 편집, 간행하였고, 1251년에 칙명으로 손자 익배(益培)가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교정, 증보하여 개간하였다.

①②-단군건국 사화의 내용이다. ③-‘여고동시(與高同時)’라는 말은 <삼국유사>에 고조선[왕검조선]의 기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위서(魏書)』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 “지금부터 2천여 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있어서, 아사달(阿斯達)[『산해경(山海經)』에서는 무엽산(無葉山)이라 하였고 또 백악(白岳)이라고도 하였는데 백주(白州)에 있다. 혹은 개성(開城) 동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백악궁(白岳宮)이 이것이다.]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였으니, 바로 중국 요(堯)임금과 같은 시기였다[與高同時].”

이 기사에서 밑줄 친 “여고동시[與高同時]”는 원래 “여요동시[與堯同時]”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고려 왕 중 태조의 둘째아들로 3대 임금인 정종[定宗]의 이름이 ‘요[堯]’이기 때문에 왕 이름은 피해서 쓰지 않는 원칙 때문에[이를 ‘피휘(避諱)’라고 한다] ‘요(堯)’자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고(高)’자로 표기하였다.

4. 다음 글이 가리키고 있는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지역 가운데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다섯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았다.

- ① 1세기 초부터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 ② 10월에는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 ③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였으며,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국가의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사료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부여에 관한 내용이다. ①③④-부여의 내용이다. ②-고구려의 제천행사인 ‘동맹’이다.

5. 아래 사상을 주장한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많음 안에 하나가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많음이 곧 하나로다.
한 작은 티끌 속에 시방 세계 머금었고
일체의 티끌 속에도 또한 이와 길도다.

- ① 6두품 출신으로 '일체유심조'를 깨닫고 당으로의 유학을 포기하였다.
- ②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 ③ 실천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중시하였다.
- ④ 당의 삼장법사 현장에 게 유식학을 배웠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사료는 신라 중대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 집약된 화엄사상의 일부이다.

①-원효, ②-의상, ③-선종의 중지로, 고려 조계종단의 지눌 등이다. ④-원측[613년(진평왕 35)~696년(효소왕 5)]이다. 의상은 당나라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6. 다음 자료와 연관된 왕의 연호로 가장 옳은 것은?

금관국주 김구해가 …… 나라 창고의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니 왕이 그를 예로 대우하여 상등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했다.

『삼국사기』

- ① 태화(太和)
- ② 인평(仁平)
- ③ 건복(建福)
- ④ 건원(建元)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료는 금관가야가 항복한다는 내용이므로 신라 법흥왕 때 [532년]의 일이다. 신라는 법흥왕 때 최초로 연호 사용 기록이 보이는데 중국 한 대의 연호인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호는 군주국가에서 군주가 자기의 치세연차(治世年次)에 붙이는 칭호로, 연호의 사용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일본, 월남 등에서도 사용하였다.

최초의 연호는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건원(建元)이다. 무제는 6년 혹은 4년마다 연호를 고쳤는데, 이후 이 기간은 무시되어 군주 일대에 몇 개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명나라·청나라 때는 1대에 한 연호(一世一元)를 사용하였다. 연호의 명칭에는 어떠한 사실을 상징하거나 이상을 표명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불교·도교와 관계되는 것도 있고, 고전의 글귀를 취한 것도 있다. 그리고 연호는 원칙적으로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보이며, 금석문을 통해 확인된다. 광개토왕비에서 광개토왕이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건흥오년명금동석가삼존불(建興五年銘金銅釋迦三尊佛)·연가칠년명금동불상(延嘉七年銘金銅佛像)·영강칠년명주형광배(永康七年銘舟形光背)를 통해 고구려에서는 건흥·연가·영강 등의 연호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칠지도(七支刀)의 명문을 통해 태화(泰和)라는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 법흥왕은 536년(법흥왕 23)에 독자적으로 연호를 세워 건원(建元)이라 하였다. 진흥왕 때 개국(開國)·대창(大昌)·홍제(鴻濟), 진평왕 때 건복(建福), 선덕왕 때 인평(仁平), 진덕왕 때 태화(太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822년(헌덕왕 14)에 웅주도독(熊州都督) 김현장이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長安), 연호를 경원(慶元)이라 칭했다.

발해에서는 고왕(高王: 大祚榮)이 연호를 세워 천통(天統)이라 하였고 이후 역대 왕이 1개씩 독자적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명나라·청나라의 1세1원보다 앞서는 것이다.

후삼국시대의 궁예는 국호를 마진(摩震)이라 하고, 무태(武泰)·성책(聖冊) 두 개의 연호를 사용했고, 다시 국호를 태봉(泰封)으로 고치고 수덕만세(水德萬歲)·정개(政開) 두 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의 태조는 천수(天授), 광종은 광덕(光德)·준풍(峻豐)의 연호를 세워 주체성을 발휘하였다. 또, 1135년(인종 13)에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라고 하였다.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국을 자처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오개혁 때 개국기원을 채택, 왕조의 개국연차를 계상해 1894년을 개국기원 503년으로 표기하였다. 그 뒤 을미사변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갑오내각은 1세1원의 연호사용을 원칙으로 내세워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대한제국의 수립으로 다시 광무(光武)라 고쳤으며, 순종이 즉위하면서 융희(隆熙)라는 연호를 세웠다.

①-진덕여왕, ②-선덕여왕, ③-진평왕 때 사용된 연호이다.

7. 통일신라시대에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에게 지급된 관모전답도 조사 대상에 해당하였다.
- ② 가호는 공연과 계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 ③ 소나 말의 개체 수는 물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들의 수량도 기록하였다.
- ④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두었다가 3년마다 촌 단위로 다시 작성하였다.

[정답] ①

[해설] ①-관모전답도 조사 대상에 해당하였지만 관모전답은 국관유지이고, 관리에게 지급된 토지의 종류로는 '내시령답'이 보인다.

②-가호는 9등급으로 편제되었는데, 공연, 계연, 등급연, 수좌내연, 회거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③-우·마의 수, 호두나무·잣나무·뽕나무 등의 유실수의 수와 증감의 변동사항도 기록하였다. ④-촌주가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두었다가 3년마다 촌 단위로 다시 작성하였다.

8. 7세기 신라인의 의식과 민족융합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라인들의 '삼한일통'의식은 일통의 범주와 대상에서 고구려를 배제한 것이다.
- ② 문무왕은 백제 유민에게 본국의 지위에 따라 신라의 관직과 관등을 주었다.
- ③ 통일 직후에는 백제,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9서당에 편성하였다.
- ④ 신문왕은 안승을 보덕국왕에 봉하고, 진골 귀족으로 편입시켰다.

[정답] ①

[해설] 문제 오류로 복수정답에 해당된다.[①④]

①-‘삼한일통’의식은 삼국을 하나로 통합하였다는 인식으로, 고구려까지 포함시킨 인식이다. ‘삼한일통’의식이 나타난 예로는,

㉠ “지금 삼한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673년, 김유신>

㉡ “삼한을 통합하여 땅을 넓혔다”
<686년, 청주 운천동 사적비>

㉢ “일통삼한(一統三韓)하였다”
<692,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편>

등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②-문무왕은 백제 유민에게 본국의 지위에 따라 신라의 관직과 관등을 주 백제지배층을 포섭하였다. ③-통일 후 중앙군인 9서당에 신라인[녹금·자금·비금서당], 고구려인[황금서당], 백제인[백금·청금서당], 보덕국인[적금·벽금서당], 말갈인[흑금서당]을 편제하여 통합정책을 취하였다. ④-오류문제로, 안승은 문무왕 때 ‘고구려왕’으로 임명[670]되었다가 4년 후 다시 ‘보덕왕’으로 임명[674]되었다. 신문왕 때는 이미 임명된 보덕왕 안승에게 소관의 직위와 김씨 성을 하사하여 진골 귀족으로 편입시키고 3관등인 잡찬 관등을 부여하였다.[683]

9. 통일신라의 상대등과 시중(중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대의 시중(중시)은 국왕을 보좌하면서 국가 행정의 실무 전반을 총괄했다.
- ② 하대의 시중은 화백회의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권력이 약화되었다.
- ③ 중대의 상대등은 국왕을 견제하고 귀족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였다.
- ④ 하대의 상대등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유력한 왕위계승자로 인식되었다.

[정답] ③

[해설] ①-신라 중대는 왕권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집사부[7세기 진덕여왕 때 설치]는 행정적 성격을 띠며 왕권을 뒷받침하였고, 장관인 중시[→시중(747/경덕왕 때)]도 진골 신분이지만 왕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또한 화백회의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화백회의의 의장인 상대등도 왕의 측근이 선출되었다. ②④-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세력이 강화됨으로써, 화백회의와 의장인 상대등의 권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왕권과 집사부가 약화되었다. ③-중대의 상대등은 국왕권 강화에 따라 국왕 측근이 선출되었고, 귀족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는 못하였다. 화백회의와 상대등이 강해지는 시기는 중대 끝인 혜공왕 이후이다.

10.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해의 상경은 당의 수도 장안성을 본떠 건설되었다.
- ② 정효공주묘는 당과 고구려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이다.
- ③ 정혜공주묘는 고구려 고분의 모줄임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굴식 돌방무덤이다.
- ④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영광탑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발해 석탑이다.

[정답] ④

[해설] ①-발해의 상경은 당의 수도 장안성을 본떠 동서남북에 따라 중앙의 큰 도로를 내고 특히 남북으로 난 중앙도로는 ‘주작대로’라 불려 도교사상이 반영되었다. ②-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인 당 양식과 평행행고임식 모줄임인 고구려 양식이 혼합되었다. ③-정혜공주묘는 고구려 고분의 모줄임천장 구조[말각조정식]를 가지고 있는 굴식 돌방무덤이다. ④-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영광탑[靈光塔]은 석탑이 아니라 벽돌탑[전탑(塼塔)]이다. 1층 탑신의 4면에는 각각 왕(王)·립(立)·국(國)·토(土)라는 글자 모양의 벽돌 문양이 있다. 이 탑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현존하는 고탑(古塔) 가운데 연대가 가장 오래 되었고, 동북 지역에서 보기 드문 누각식 탑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 당나라의 건축기법과 유사한 면을 보여, 당나라 시기에 발해와 중국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설명해준다.

11. 다음 삼국시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광개토태왕은 왜국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왜병을 낙동강 유역에서 섬멸하였다.
나. 백제 멸망 이후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에서,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저항하였다.
다.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을,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라. 지증왕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순장을 금지시켰다.

마. 문자왕 때는 부여를 복속시켰으며,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④

[해설] 모두 맞는 내용이다.

가-400년의 사실, 나-백제부흥운동[660~663], 다-고구려는 영양왕 때 『신집』(600),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서기』,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국사』(545)를 편찬하였다. 라-문자왕 때[491~519]는 부여를 복속시켰으며[494],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12. 고려시대의 지방 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종 때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12목에 목사를 파견하였다.
- ② 5도의 장관으로는 안찰사, 양계의 장관으로는 방어사가 각각 파견되었다.
- ③ 3경은 처음에는 개경, 서경, 동경을 가리켰으나. 이후에는 동경 대신 남경이 들어갔다.
- ④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더 많았다.

[정답] ②

[해설] ①-성종은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왕2년[982]에 12주목[→뒤에 목사로 개칭]을 파견하였고, 성종 14년[995]에 10도제를 신설한 후 종래의 12주를 12군[12軍]으로 개편하면서 그 지방관도 절도사로 바꾸었다. ②-5도제는 대략 예종 때로 보이는데 장관으로 안찰사[→안렴사→제찰사→안렴사]가 파견되었다. 한편, 양계[북계와 동계]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는데 성종 2년 때 북계에 외관이 임명되었고, 성종 8년에 양계의 장관인 병마사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후 서북면(계)와 동북면(계)에 각기 병마사가 있어 외직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례는 현종 때에 나타난다. 어쨌든, 양계의 장관은 ‘병마사’이고 ‘방어사’는 양계 관할하의 하부 행정구역인 방어주에 파견된 관직명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이 제도가 유지되다가 조선 중기 이후에는 무관직으로 전국의 군사요지에 파견되었다. 정식 명칭은 병마방어사 혹은 수군방어사였으나 전원을 지방 수령으로 겸임하게 하였으므로 겸방어사(兼防禦使)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병마방어사는 1566년(명종 21) 광주부사가 겸하는 경기병마방어사를 설치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수군방어사는 1642년(인조 20) 선천부사(宣川府使)가 겸하는 평안수군방어사를 설치한 것이 처음이었다.

③-3경제도는 태조 때 양경[개경·서경(평양)], 성종 때 3경[개경·서경·동경(경주)], 문종 때 3경[개경·서경·남경(양주-지금의 서울)]으로 정비되었고 숙종 때 남경개창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중 개경, 서경, 남경은 풍수지리사상과도 관련된다. ④-고려시기에는 속현이 주현보다 3 : 1의 비율로 더 많았다.

13. 다음은 어느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 전시과를 시행한 왕과 전시과의 이름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이 전시과는 18등급으로 나누었지만 제18과 아래에 따로 한외과(限外科)를 두어 전지 17결을 지급하였으며, 이전에 왕실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관직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 ① 경종 - 시정전시과 ③ 문종 - 개정전시과
- ② 목종 - 개정전시과 ④ 목종 - 경정전시과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료의 내용은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만을 기준으로 한 점, 한외과의 지급결수가 전15결[시정전시과]에서 전 17결[개정전시과]인 점 등을 근거로 목종 때 실시한 개정전시과[998]임을 알 수 있다. 시정전시과[976/경종]→개정전시과[998/목종]→경정전시과[1076/문종] 순으로 변천, 정비되었다.

14. 다음 고려후기 각 왕대의 개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선왕은 사림원을 통해 개혁 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 ② 충숙왕은 찰리변위도감을 설치하여 개혁 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 ③ 충혜왕은 정치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 ④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 재정 확보 및 민생 안정을 꾀하였

다.

[정답] ③
 [해설] ③-정치도감은 충목왕 때 설치되었다[1347/충목왕 3].
 ①-사림원[1298/충선왕 즉위년], ②-찰리변위도감[1차(1318/충숙왕 5), 2차(1321/충숙왕 8)], ④-전민변정도감[1352/공민왕 1]
 전민변정도감은 총 7차례에 걸쳐 설치되었는데 1269년(원종 10) 최초로 설치되었고, 그 뒤 1288(충렬왕14)·1301(충렬왕27)·1352(공민왕 1)·1366(공민왕15)·1381(우왕 7)·1388(우왕14)년에 각각 설치되었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는 유명무실화되어 폐지되었다.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명왕의 일은 변화·신이로써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요, 실은 창국(倉國)의 신적(神迹)이라. 이를 서술해 두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무릇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도(都)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① 동명왕과 관련한 기록은 『구삼국사』에 전해 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 ②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면서 생략한 내용을 시로 서술하여 후세에 알리고자 하였다.
- ③ 무신집권기에 편찬된 역사서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 ④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성인의 도’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였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려 무신집권기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의 내용이다. ①②③④-『동명왕편』은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에 관해 쓴 장편 한문서사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낸다.
 『동명왕편』은 당시 중화중심의 역사식에서 탈피하여 《구삼국사(舊三國史)》에서 소재를 취하여 우리의 민족적 우월성 및 고려가 위대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고려인의 자부심을 천추만대에 전하겠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으로, 작자의 국가관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외적에 대한 항거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16.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도전은 궁궐의 전당과 도성의 성문에 유교적 윤리덕목과 오행사상이 담긴 이름을 지었다.
- ② 건국초기에 종루, 이현, 칠패 등을 조성하여 상업도시로 정비하였다.
- ③ 수도 한양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강과 연결되어 수운과 교통에 편리하였다.
- ④ 왕실 조상의 신주를 모신 종묘,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을 궁궐의 좌우에 건설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②-종루는 종로네거리 일대를 말한다. 종루는 조선 초부터 종로네거리 도성을 여닫고 인정(人定)과 파루(罷漏)를 알리는 종을 매단 종루(鐘樓)가 세워져 있던 데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종루십자가·종로·종가·종루가·운종가 등으로 불렸다.
 이현은 종로구 종로4가동·예지동·인의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배나무가 여러 그루 심어져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는데 배나무가 있어 배나무고개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으며 조선 전기에도 불려졌던 지명이다.
 칠패는 조선 후기 3군문 가운데 하나인 어영청(御營廳) 소속의 일곱 번째 순찰 담당구역이었다. 칠패길은 조선후기 중구 봉래동1가 부근에 있던 어물시장이 칠패시장이었던 데서 유래되었다. 또한 조선 초기에는 농본주의 정책을 강조하여 상공업은 천시하였고, 이곳을 배경으로 상업도시적인 면모로 성장한 것은 조선 후기이다.
 ①-한양은 인[홍인지문(동대문)]·의[돈의문(서대문)]·예[송례문(남대문)]·지[숙정문(북대문-북쪽은 오행상 수국水局이므로 칙의 특성이다)]의 4대문에다 중앙의 신[보신각(普信閣)]까지 음양오행에 유교적 덕목을 각 방위의 결절점에 새긴 도성 공간은 유교적 이상주의의 산물을 상징한다.
 ③-한양은 국토 남북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운을 활용할 수 있는 한반도 전역을 통치할 도읍지로 최적의 선택지였다.
 ④-『주례』의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동쪽[좌]에 종묘를, 서쪽[우]에 사직단을 배치하여 세웠다.

17. 다음의 지문과 같은 정책을 편 왕의 업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6조를 왕이 직접 장악하여 재상중심의 정치운영을 국왕중심 체제로 바

꾸었다.
 나. 호구와 인구 파악을 위해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 ①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 ② 백성들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한 제도인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 ③ 억울하게 공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 ④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6조직계 시작과 호패법 실시는 태종이다.
 ④-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한 것은 1419년 세종 1년이다.
 ①②③-태종의 정책이다.

18. 다음 중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 악폐’를 주장한 사람이 저술한 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성호사설』 ② 『우서』
- ③ 『지봉유설』 ④ 『담헌서』

[정답] ①
 [해설] 6종론[‘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 악폐’]을 주장한 사람은 18세기 성호 이익이다.
 ②-유수원, ③-이수광, ④-홍대용의 저술이다.

19. 조선전기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향사례, 향음주례 등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② 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문중서원이나 사우 건립이 활발해졌다.
- ③ 현량과를 통해 재야에서 인사들을 등용하였다.
- ④ 성종 때 훈구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앙 관직에 등용되어 주로 3사와 전랑직에서 활동하였다.

[정답] ②
 [해설] 발문의 ‘조선전기’ 시기의 사림이라는 표현에 포인트를 두고 풀어야 한다. ②-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문중서원이나 사우 건립이 있었던 것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으나 그것이 ‘활발’해진 것은 조선 후기이다.
 ①-향사례, 향음주례는 주(周)나라 시대 향대부(鄉大夫)가 3년마다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행하는 활 쏘는 의식으로, ‘사(射)’의 의미는 “그 뜻을 바르게 한다(定其志).”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됨에 따라 향음주례와 더불어 향사례에 대한 지식도 이미 알려진 듯하나, 그 의례가 잘 반영된 것으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가운데 향사의를 들 수 있다. 향사의는 오례 중 군례(軍禮) 의식으로서 “매년 3월 3일(가을에는 9월 9일)에 개성부 및 여러 도·주·부·군·현에서 그 예를 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향음주례가 나이가 많고 덕과 재주가 있는 자를 앞세우는 반면, 향사례에서는 효제충신(孝悌忠信)하며 예법을 좋아해 어지럽히지 않는 자를 앞세운다고 하였다.
 그러나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국조오례의』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성종 때까지도 지방수령·감사들이 거의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세조의 집권으로 물러났다가 성종의 즉위로 다시 중앙에 진출할 기회를 가졌던 영남 출신의 성리학파는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고해지자 하나의 정강(政綱)으로서 유향소복립(留鄕所復立)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종직(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이들 사림파의 유향소복립운동은 단순한 이전 제도의 부활이 아니라, 『주례』의 향사례·향음주례를 실천할 기구로서 유향소를 거론하였다.
 중종대에 이르러 향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또다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나, 이때는 성종 때와는 달리 향음주례의 시행을 중심으로 거론되며, 향음주례와 함께 논의된 것은 향사례가 아니라 친영례(親迎禮)였다. 그 이유는 향사례가 ‘뜻을 바르게 함’을 위한 것이라 할 때 그 의식 시행의 대상은 유생(儒生)에 제한되는 것이었기에 습속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여씨향약(呂氏鄉約) 보급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③-16세기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 현량과가 실시되었다[1519년(중종 14)].
 ④-조선전기 사림은 3사와 전랑직에서 주로 활동함으로써 훈구파를 견제하고 비판하였다.

20. 아래의 지문과 관계있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래 사람의 생리 속에는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두루 잘 통해서 어둡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할 줄 알며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덕이며 이른바 양지

(良知)라고 하는 것이니, 또한 인(仁)이라고도 한다.

- ① 위의 글을 지은 인물은 집권 노론의 자제로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② 왕수인의 친민설을 적극 지지하였다.
- ③ 위의 글을 지은 인물은 하곡을 호로 하고 있다.
- ④ 위의 글을 지은 인물은 일반 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지문에서 '양지(良知)'라는 단어를 통해서 양명학자임을 알 수 있고 강화학파를 이룬 하곡 정제두[1649(인조27)~1736(영조12)]의 주장이다.

양명학은 명나라의 왕수인(王守仁, 호는 陽明, 1472~1529)에 의해 주창된 유학의 한 계통으로, '양지설[良知說-선협적 지식=참된 앎=성선설]', '심즉리설[心即理說]',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상 체계이다. 우리나라에 왕수인의 『전습록』이 전해진 것은 이미 왕수인이 살아 있을 때로서 1521년(중종 16)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양명학은 남언경(南彦經)과 이요(李瑤) 등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했고, 허균(許筠)과 이수광(李睟光)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양명학을 수용한 것은 장유(張維)와 최명길(崔鳴吉)을 거쳐 양명학파가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은 정제두에 의해서다.

정제두는 왕수인의 심즉이설을 받아들여 주자의 마음[心]과 이(理)를 구별하는 견해를 비판하였고, 양지의 개념도 지각이나 지식의 뜻과 구별해 성체(性體)의 지(知)요, 본연의 선(善)이며, 곧 오상(五常)[인·의·예·지·신]의 지임을 뜻하는 내용이라고 성의 본체를 해석하였다. 심(心)·성(性)·정(情)의 관계도 성은 양지의 본체이고, 정은 양지의 작용이며, 마음은 바로 양지의 전체이다. 그리고 지행합일설에 대해서도 지와 행을 둘로 나누는 것은 물욕에 가려진 것이며, 양지의 본체에서 보면 지와 행이 하나라고 해석하였다.

정제두는 소론으로 강화학파를 형성했으며, 《하곡문집(霞谷文集)》과 저서로 《존언(存言)》, 《성학설(聖學說)》, 《논어해(論語解)》, 《맹자설(孟子說)》, 《중용해(中庸解)》, 《천원설(天元說)》, 《경학집요(經學集要)》, 《경학서성(經學書成)》 등이 있다.

이후 실학과 가운데 홍대용(洪大容)과 박지원(朴趾源)·박제가(朴齊家) 등 이른바 북학파[이용후생파]의 중심 인물들은 양명학을 통해 사상적으로 무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학 분야에서 양명사관으로는 이종휘로부터 시작되어 이광사의 맏아들인 이충익의 『연려실기술』, 이광명의 아들 이충익(李忠翊)의 『군자지과(君子之過)』, 이면백(李勉伯)의 『감서(愍書)』·『해동돈사(海東惇史)』, 그의 아들 이시원(李是遠)의 『국조문헌(國朝文獻)』 및 그것을 토대로 한 이건창(李建昌)의 『당의통략(黨議通略)』 등이 있다.

언어학에서 이광사의 정음 연구를 이영익과 이충익이 계승하고 정동유와 유희가 더욱 발전시켰다. 서예는 이광사에 이르러 원교체(圓峯體)로 창조되고, 이충익·이충익과 특히 정문승(鄭文升)의 서화는 산수화에 뛰어나 『근역서화징』에 소개되어 있다. 한말 이후 양명학과 관련된 독립 운동가는 김택영·박은식·정인보 등이다.

- ①-북학파에 대한 설명이다. 주의할 것은 북학파는 인물성동론을 기초로 한 낙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양명학의 평등사상과 맥락이 닮아있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글을 지은 인물은 소론 정제두이다.
- ②-왕수인은 양명학을 체계화시킨 인물로, 정제두는 마땅히 지지했다. ③④-양명학의 심즉리설, 양지설 등은 성선설에 기초한 평등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 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불교의 선종[=불심종], 호락논쟁의 낙론[인물성동론], 동학[인내천]과도 맥락상 같은 주장이다.

21. 조선전기 농업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밭에서 조, 콩, 보리의 2년 3작이 이루어졌다.
- ② 휴한농법을 극복하고 상경이 가능해졌다.
- ③ 하천을 막아 보를 쌓는 등 수리시설이 개선되었고, 수차를 이용하여 저수지 물을 논에 관개하는 기술도 개선되었다.
- ④ 상업적 농업이 성행하였으며, 면화, 고추, 호박, 감자 등의 상품작물도 재배하였다.

[정답] ④

[해설] 정밀하게 출제하지 못한 문제이다. 복수 정답이라고 볼 수 있다.[③④]

①-2년3작의 윤작법은 고려 후기부터 보급되었으므로 조선 전기에 더욱 확대되었다. ②-15세기부터 시비법의 발달로 연작 상경 농법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③-하천을 막아 보를 쌓는 등 수리시설이 개선된 것은 맞으나, "수차를 이용하여 저수지물을 논에 관개하는 기술도 개선되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 15세기 세종~문종 연간에 중국 강남농법을 도입하여 수차를 이용하여 논농사에 관개기술을 개선하려 하였으나 산지가 많은 지형상의 특징으로 실패하고 만다. 단 염전 등에서는 사람의 발로 디더 밭아 돌리는 답차[踏車]라는 물레바퀴였다. ④-상업적 농업이 성행한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또한 작물 중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 감자는 19세기에 전래되었다. 면화는 이미 백제 유물에서 완전한 면직물이 출토됐기 때문에 고려 말 공민왕 때 문익점이 전래했다는 기존의 학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양계 호박은 문헌상으로는 조선시기의 문헌에 등장하는데 삼국시기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재배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22. 조선전기 상업의 모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물가치가 있는 무명을 화폐 대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화라고 불렀다.
- ② 전라도 농민들이 생산품을 들고 읍에 나와 파는 현상이 나타났다.
- ③ 객주와 여각이 나타나고 거래를 붙이는 거간도 생겨났다.
- ④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시전이 가장 번성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①조선 전기에도 화폐는 발행되었으나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로 인해 현물 거래 위주였으며, 특히 면포를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②-15세기 말 성종 때 전라도에서 '장문[場門]'이라 불리는 장시가 개설되어 교역하였다. ③-조선 후기의 상업적 모습이다. ④-조선은 건국 초기 태종 때부터 한양에 2천5백여 칸의 관허 상점인 '시전'을 설치하고 관허상인인 시전상인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공랑세(公廊稅 : 국가에서 지은 상가인 공랑을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세금)를 받았다. <경국대전>에는 시전 상인들이 건물 1칸마다 봄·가을에 각각 저화(楮貨) 20장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선조 때 6의전이 지정되었고 인조 때 시전상인들에게 '금난전권'이라는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다. 18세기 정조 때는 신해통공[1791/정조15년]의 조치로 6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여 물건의 독점을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소민을 보호하는 정책과 더불어 노론 벽파의 정치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하였다.

23. 다음 지문에 보이는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양수의 「봉당론」이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여기서는 정치에서 봉당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봉당을 공도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의 '군자의 당'과 개인적 이익의 도모를 일삼는 '소인의 당'으로 구분했다.

- ① 당파를 초월하여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였다.
- ② 봉당정치는 반대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을 보장하였다.
- ③ 학문과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과 이념을 달리하는 봉당이 형성 되어 서로 경쟁하였다.
- ④ 각 봉당은 서원 등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세력을 확대·재생산 할 수 있었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료의 내용은 '활빈당[活貧黨(1900 무렵~1906)]'의 강령인 <대한사민논설 13조> 중 일부이다.

활빈당은 1900년 충청남도 일대에서 시작하여 남한 각지에서 반봉건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들고 봉기했던 무장민중의적집단이다. 1900년 2월경 충청남도 내포(內浦) 지방의 신창·예산·대흥·청양·정산·홍주·덕산·해미·법성·보령·남포 등지에서 봉기한 뒤, 충청북도·경기도·강원도·영남·호남 등 남한 각지로 그 세력이 과급되어 1906년까지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활빈당은 13개조의 행동강령을 내걸고 '자연평등'과 '빈부타과' 및 '국가혁신'을 외쳤다. 그들은 축재한 사람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불우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에 활력을 넣겠다는 소박한 공상적 사회주의사상(空想的社會主義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활빈당에는 동학혁명군과 화적(火賊) 출신들이 많이 가담해 있었다. 출신지는 일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모인 혼합부대였다. 또한, 활동 범위도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 각지를 기동적으로 움직여 다니며, 투쟁 대상은 지배층과 탐관오리와 부정축재한 부호였다.

따라서, 활빈당은 위정자들에 의해 모욕적으로 낙인찍힌 일반 도둑의 무리나 폭도 혹은 비도(匪徒)가 아닌 정치적 성향을 띤 의군(義軍)이었던 것이다. 활빈당은 농민이나 행상인의 금품은 빼앗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그 세력을 대중 속에 뿌리박을 수 있었다.

1904년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된 뒤 활빈당의 투쟁은 의병운동 대열에 흡수되어 반일무장투쟁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①-대한자강회[1906~1907], ②-영학당[1898, 1899]이다. 영학당은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봉기한 무장농민조직으로, 동학당(東學黨)의 잔여 세력들이 1898년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 대신 '영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재건한 조직이다. '영학'이란 명칭을 쓴 것은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가 영학, 즉 영국의 종교인 것처럼 위장하여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③-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1910]를 조직하고 교육기관으로 신홍강습소[1910]를 설립했는데, 경학사는 이후 부민단[1912]→한족회[1919]→서로군정서[1919]로 개편되었으며, 신홍강습소는 이후 신홍중학교[1913]→신홍무관학교[1919~1920]로 개편되었다.

④-활빈당 당명의 의미이다.

29. 병인양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프랑스군은 강화도 일대에 대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여 행궁과 외규장각 등을 불태웠다.
- ② 프랑스군 퇴각 직후 대원군은 서양과의 타협을 반대하는 척화비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다.
- ③ 프랑스군은 초지진을 초토화시킨 뒤 정족산성을 공격해 조선군의 수자기를 약탈했다.
- ④ 병인양요에 분노한 대원군은 베르뇌 등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도 8천여 명을 처형했다.

[정답] ①

[해설] 병인양요[1866]는 1866년 초에 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려 프랑스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신자 수 천 명을 학살하였다[병인박해]. 이 박해 때 프랑스선교사는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3명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3명 중, 리델(Ridel)이 중국으로 탈출해 주중 프랑스 함대사령관 로즈(Roze, P.G, 魯勢)에게 박해 소식을 알리면서 보복 원정을 촉구했다. 이에 로즈가 대함대를 이끌고 내침, 한불간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었다. 프랑스군은 10월 14일 상륙 이래 거의 한달 동안 강화도를 점거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했기 때문에 정족산성을 재공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0일 함대를 철수하고 말았다. 프랑스군은 강화도 철수 시 고도서 345권과 은괴 19상자 등 문화재를 약탈해갔다. 로즈의 조선 원정은 11월 21일 제2차 원정이 끝날 때까지 무려 2개월여에 걸친 장기 원정이었다.

②-병인양요 직후에 척화비의 비문이 작성되었고, 신미양요[1871] 직후에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③-신미양요이다. ④-베르뇌 등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도 8천여명을 처형한 병인박해가 먼저이고, 이에 병인양요가 발발하였다.

30. 천주교가 전래됨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주문모 신부 입국
- 나. 안정복 '천학문답' 작성
- 다. 윤지충 신주소각 사건

라. 김대건 신부 처형

마. 황사영 백서사건

- ① 다 - 가 - 나 - 라 - 마
- ② 가 - 나 - 다 - 마 - 라
- ③ 나 - 다 - 가 - 마 - 라
- ④ 가 - 나 - 다 - 라 - 마

[정답] ③

[해설] 가. 주문모 신부 입국[1795]

나. 안정복 '천학문답' 작성[1785]

다. 윤지충 신주소각 사건[1791(진산사건→신해박해)]

라. 김대건 신부 처형[1846(병오박해)]

마. 황사영 백서사건[1801(신유박해)]

31. 조선의 근대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신정변 실패로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고 배상금 10만원을 지불했다.
- ② 1차 갑오개혁 때 방곡령 반포를 금지하고 과거제도를 폐지했다.
- ③ 독립협회는 미국과 일본 등의 이권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 ④ 「대한국 국제」는 황제가 막강한 제권(帝權)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선포된 것이다.

[정답] ③

[해설] ③-독립협회는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권침탈 요구에 반대운동을 전개했지만, 미국·영국·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한 한계를 보였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탄고 설치를 목적으로 한 부산의 절영도 조차(絶影島租借) 요구 저지, 군사기지 설치를 목적으로 한 목포·중남포(甌南浦)해역의 토지 매도 저지, 한러은행 폐쇄 등의 성과를 올렸고, 프랑스에 대해서는 광산채굴권 요구 저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①-갑신정변 직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1884.11.24(음)=1885.1.9(양)],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1885.4.18(음)=1885.5.31(양)]이 체결되었다. ②-1889년부터 발생한 방곡령 사건은 청나라의 권고에 따라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배상금 11만 환을 지불하기로 하고, 1894년 1월에 전면 해제되었다. 과거제도 폐지도 갑오1차개혁 때 단행되었다. ④-대한국국제[1899]는 전문9조로 된 전제군주제를 표방한 문서이다.

32. 대한제국 군대해산 후의 의병전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돌석, 김수민, 홍범도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도 많이 나왔다.
- ② 서울진공작전은 승전에도 불구하고 총대장 이인영의 부친상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
- ③ 강화 분견대 등 해산 군인들의 의병 가담은 의병의 사기와 전투력을 크게 높여주었다.
- ④ 이인영은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공법상 전쟁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통문을 보냈다.

[정답] ②

[해설] 대한제국 군대해산 후의 의병전쟁은 3차 의병전쟁인 정미의병[1907~1909]을 의미한다. ②-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거병한 정미의병은 서울공략을 목표로 한 전국 13도연합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13도창의군]. 비밀리에 연락하여 1907년 11월 양주에 집결한 전국의 의병장들은 연합부대를 결성하고 이인영을 13도 창의대장으로 추대하였다. 이 연합부대는 서울 동대문 밖에서 대오를 정비한 후 서울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정보를 얻은 일본군이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서 반격해옴으로써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대장 이인영이 진공작전을 눈앞에 두고 부친 사망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의병운동을 중지하라는 통문을 각 진영에 돌림으로써 지도부마저 붕괴되었다.

①-신돌석[을미-을사-정미의병 참여], 김수민[농민전쟁-정미의병 참여], 홍범도[을미-정미의병 참여]. ③-허위+강화분견대는 포천·연천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④-정미의병전쟁 시기 의병은 스스로 독립군을 자처하고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공법상 전쟁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통문을 보냈다.

33. 다음 서적과 저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말의 소리』 - 이봉운
- ② 『신정국문』 - 유길준
- ③ 『조선문진』 - 지식영
- ④ 『국어문법』 - 주시경

[정답] ④

[해설] 근대시기 중 대한제국 말기 국학부분에 대한 문제이다.

- ① 『말의 소리』(1914/주시경)-구조언어학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창안한 세계 최초의 업적.
- ② 『신정국문』(1905/지석영이 상소하여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문개혁안)
- ③ 『조선문전』(1897~1902/유길준)-최초의 국어 문법 연구서.
- ④ 『국어문법』(1910/주시경)-‘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본 이론 확립[소리갈(음성론), 기난갈(품사론), 짬듬갈(구문론) 등 3가지로 설명], 국어의 품사를 9개로 갈라 품사 분류, 국어문법사상 처음으로 문법용어를 순 한글로 표기

※이봉운은 『국문정리』(1897)를 저술하였다.

34.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 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항 초기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일본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었다.
- ②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라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다.
- ③ 러시아가 침탈한 대표적인 이권은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산림 벌채권과 운산 금광채굴권이었다.
- ④ 일본은 러·일 전쟁을 계기로 철도 부지와 군용지를 확보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대규모의 토지를 강탈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러시아가 침탈한 대표적인 이권은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산림 벌채권은 맞는 내용이지만, 운산 금광채굴권을 빼앗은 나라는 미국이다 [1896]. ①-조일수호조규 부록[1876.7.6(음)=1876.8.24(양)], ②-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23(음)=1882.10.4(양)]→양화진, 한성(청계천 개방). ④-한일의정서[1904.2.23(양)]

35.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조선 민중야!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이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학교의 용어는 조선어로! 학교장은 조선 사람이야 한다!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인 물품을 배척하자!
 -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작제를 4.6제로 하고 공과금은 지주가 납부한다!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 일본인 지주의 소작료는 주지 말자!

- ① 북벽주의 운동의 일환이었다.
- ②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학생운동이었다.
- ③ 양기탁에게 국채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운동이 실패하였다.
- ④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전개된 운동이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는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들고 일으킨 6·10만세운동 당시의 격문이다.

- ①-북벽주의란 왕정 복고 주의를 의미하는데, 1910년대에 대한독립의군부 [1912~1916/임병찬 등/국내←고종의 밀명을 받음], 민단조합 [1915~1918/이동하 등/국내], 대한독립단 [1919/박장호, 조맹선 등/ 서간도] 등 몇 개의 단체가 주장하였지만 3·1민족운동 이후 청산되고 대부분 민주 공화주의 근대국가를 표방하였다. ②-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 ③-국채보상운동 [1907], ④-6·10만세운동 [1926]

36.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떠나 창사, 충칭 등 여러 곳으로 이동할 당시 조선총독부가 취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도 적용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 ②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던 태형을 부활하였다.
- ③ 가난한 농민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다.
- ④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여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바꾸었다.

[정답] ②

[해설] 대한민국임시정부[1919.4.11 건국/상하이]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활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가) 상하이시기[1919~1932] : 외교활동 주력기 / 1차[1919], 2차[1925], 3차[1927] 개헌

(나) 이동시기[1932~1940] : 정당활동 활성화

(다) 충칭시기[1940~1945] : 무장독립전쟁기 / 4차[1940], 5차[1944] 개헌이다.

- ①-국가총동원법 공포[1938], ②-조선태형령[1912], ③-농촌진흥운동 [1932~1936], ④-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3]

37. 다음 강령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야 전국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 조직과 행정 조직과 민중 단체와 민중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가. 광복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나. 화북지방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결성하였다.
 다. 4차 개헌 때 주석·부주석제를 채택하여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었다.
 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마. 우리 역사상 3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였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①

[해설] 대한민국임시정부[1919~1945]의 충칭시기[1940~1945]에 발표된 건국강령이다[1941.11.25].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조용은(호:소양)이 기초한 삼균주의[三均主義 : 정치·경제·교육]를 채택하여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국가를 지향하였다.

가-조선건국동맹[1944~1945]이 광복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나-화북조선독립동맹[1942~1945]과 그 산하 부대인 화북조선의용군 [1942~1945]

다-4차 개헌 때 [1940] 주석제로 바뀌었고, 5차 개헌 때 [1944] 주석·부주석제를 채택하여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었다.

라-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중국인민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마-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3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였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라와 마 2개이다.

38. 다음 발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미.소공동위원회를 지칭)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 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 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② 신탁통치 반대 운동
- ③ 좌·우 합작 운동
- ④ 6·25전쟁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주장은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인 '정읍발언 [1946.6.3]'이다. 이승만은 제1차미소공동위원회[1946년 3월~5월]가 결렬된 직후 주장하였다.

①-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제헌국회에서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22일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2년 기한]. 이에 근거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10월 22일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결국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 친일경찰과 친일파 반민특위의 위원들 암살 시도뿐만 아니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특경대 대원을 체포하고 무장해제를 시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9년 7월에 일부 국회의원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사회의 불안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말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가결되었으며, 반민특위 조사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친일파의 처벌이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모두 사퇴하였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된 후 도피한 친일파와 조사 불능 지역에 거주하는 친일파의 조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반민특위 위원장이 사퇴하고,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 폐지안과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되었다.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년 2월에 폐지되어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②-신탁통치 반대 운동[1945.12.28~]

③-좌·우 합작 운동[1946.7~1947.7]

④-6·25전쟁[1950.6.25~1953.7.27]

39. 다음의 진행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가. 8·15 선언 나. 7·4 남북공동성명
다. 6·23 평화통일선언 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나 - 라
- ③ 나 - 라 - 다 - 가
- ④ 다 - 가 - 나 - 라

[정답] ①

[해설] 현대사회의 통일정책을 시기 순으로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 8·15 선언[1970.8.15],
나. 7·4 남북공동성명[1972.7.4],
다. 6·23 평화통일선언[1973.6.23],
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89.9.11]

40. 다음은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과 관련된 국제회의들을 열거한 것이다. 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포츠담회담 - 카이로회담 - 모스크바3상회의 - 미·소공동위원회
- ② 포츠담회담 - 카이로회담 - 미·소공동위원회 - 모스크바3상회의
- ③ 카이로회담 - 모스크바3상회의 - 포츠담회담 - 미·소공동위원회
- ④ 카이로회담 - 포츠담회담 - 모스크바3상회의 - 미·소공동위원회

[정답] ④

[해설] 해방 전후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카이로회담[1943.11.22~11.26/미·영·중]-한국 독립 최초 보장
㉡포츠담회담[1945.7.26/미·영·중·소]-한국 독립 재확인
㉢모스크바3상회의[1945.12.27/미·영·소]-임시 조선(한국)민주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최고 5개년 간 4개국 신탁통치 또는 후견 실시[미·영·소·중]
㉣미·소공동위원회[1차(1946.3월~5월) · 2차(1947.5월~7월)]